

“부처님, Good Morning”

회계사 어린이 영어교실 '윈더폴' 참여 많아 법회 활성화에도 기여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회계사 어린이 법당에서는 Lesley Eisele 선생님과 어린이 영어교실에 참석한 어린이들 사이에 다양한 영어인사가 오간다. 회계사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실이 매주 열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 영어교실이 가장 인기다. 참가자만도 40~50여명에 이르고 부모님이나 친구와 함께 영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특히 영어교실에 동참한 아이들이 10시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어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의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영어교실 수업 장면.

도 만화보다 영어수업이 재미있으며 몇년째 빠지지 않고 있다. 특별한 수업 교재는 없지만 Lesley Eisele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독특하다. 매주 프린트를 준비해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려가며 영어를 가르친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있거나 누워서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학교와 너무나 다르고 사실 학원보다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흥미도 비교적 많이 느끼는 편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회계사 국제선원에서 선을 공부하고 있는 Lesley Eisele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을 안듣고 어리광을 부리면 짜증도 나지만 매주 빠짐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부처님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천진불을 보는 듯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대불전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전 총동문회·대불전·현대불교신문사



◇부경대학교 불교동문회는 11일 부산 소림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세월가도 불심과 우정은 여전

경전공부·정기법회 '뜨거운 구도심' 성지순례 후원 통해 후배들과 교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동문회 활동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11일 부산 소림사에서 열린 부경대학교 불교동문회 정기법회에서 ‘초발심자경문’ 공부를 끝낸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불전 참례는 위기상황에 책임을 통감한 까닭이다. 특히 소림사는 대불전 부산지부 창립 당시, 10여 군데의 사찰을 돌며 법회 장소를 구하다 모두 거절당했던 위기의 순간에 법당을 선택한 내준 정일스님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회원들의 마음은 남달랐다. 3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다시 한국 불교와 부산불교의 현재를 걱정하는 부경대 불교동문회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부산공전과 수산대학교가 부경대로 통합되면서 60년대 말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오던 흥법회와 수불회가 2000년 4월 부경대 불교동문회로 거듭난 부경대 불교동문회는 학생 때의 열정을 잃지 않은 동문회로 꼽힌다. 후배 학생들의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불교 동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 없는 통합을 이룬 이후 통합 회장단을 선출하고 소림사 정기법회 개최, 후배들과의 가족 체육대회, 초파일 불교사상대

강연회 등으로 재도약의 기를 다지며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초발심자경문, 금강경, 육조대장경 등의 공부를 통해 동문들의 구도심을 담아내고 있는 정기법회를 비롯, 온라인(http://pkubuddhism.org)상의 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한 사찰순례 및 문화유적 고적답사는 부경대 불교동문회의 역량이 돋보이는 행사다. 매년 한차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성지순례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후원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를 계기로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대학생 포교 및 불교학생회 활성화에 동문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소림사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경대학교 불교동문 장학회 발족까지 추진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불전 후원회원 뭉치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금 배신 분

▲조병영 10구좌 ▲강태진 5구좌 ▲김영국 5구좌 ▲정용학 5구좌 ▲김유신 5구좌 ▲이희진 5구좌 ▲조영숙 1구좌

7월 16일 현재 198구좌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전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은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전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전 총동문회
www.daebul.or.kr

*기사첨재 '2003 불의 해 캠페인'과 '명작비디오 파일'입니다

'자연속에서 부처님을'

부다피아 여름 캠프로

적멸보궁 참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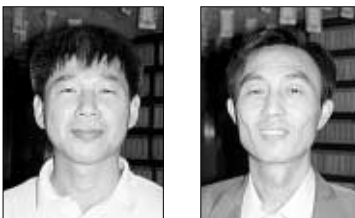
프로그램 다양

현대불교신문사는 7월 29일~31일까지 2박 3일간 '자연속에서 부처님을'이란 주제로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백덕산 관음사 일대에서 제 6회 부다피아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맑은 심상을 길러주기 위해 적멸보궁 참배, 담임선과 물놀이, 신나는 미니 올림픽, 극기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 초등학생 선착순 200명
참가비: 6만원
문의전화: 02)722-4162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예금주 김원우)

자각스런 동문들



부경대 불교동문회는 부산·경남 불교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근(68학번) 현 부경대 불교동문회장은 종합학교인 금정중학교의 교법사이자 범어사 상임법사로 활동하며 '나눔화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경대 통합 2대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상균(75학번·사진 왼쪽) 동문은 자업복 한 벌의 단발신사로 지내며 모은 돈을 어려운 곳에 쾌척하는 무주상보시로 동문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울산, 거제, 제주지역의 불교 활동을

각지역 불자회 창립 등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

이끄는 주역들도 동문들이다. 강래철(74학번) 동문은 제주대학 재직 당시, 제주 대학 교직원 불자회를 창립하고 제주 불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강원도 춘천대학 교직원 불자회 창립도 주도했다. 하요종(75학번·오른

쪽) 동문은 거제 불교거사법회를 만들어 거제 지역 불교의 터전을 다졌다. 이 밖에도 최병문(71학번) 동문은 불교신문 지사장으로 29년 동안 재직하며 불교인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사바타 센터

경전의 이 미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간(肝)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동종 율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 한 해를 열어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귀신은 속여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신도님들의 사주상당시에 <용신 잡는법> 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명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를 습득하는데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 뺄셈, 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들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서적명: 최신팔자명리학 비결
▲규격: A-4 용지, 620 페이지
▲저자: 오산 정대원
▲가격: 220,000원
▲구입방법: 하기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기타사항: 본서내에는 <용신잡는법> 이외에 각종 최고수준의 사주분석 비결들이 담겨져 있음.
계좌번호: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정대원

그외, 본서의 비결들을 단기간에 전부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연구소에서는 1개월 과정의 저자 직강의 강의를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3동 779-15호. 한일인터넷 주소: "사주 팔자닷컴"
전화: 02-831-0055(대표)
H·P 011-208-0051 FAX 02-831-0058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색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저장보살인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날 여승을 바깥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나왔다. 다시 타고 다음 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천 지화원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즐거 후 줄곧 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현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출현하시라 했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입원 여정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명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 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여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위해 부도 직전에 이른 수월의 어느 건설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할 마다 그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출현대에 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남다른 달마도를 그리며 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고고운 고(高)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1857-4576, 0171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